

2024년 2월 11일. February 11,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 To you I lift up my eyes,
O you who are enthroned in the heavens!
2. Behold, as the eyes of servants
look to the hand of their master,
as the eyes of a maidservant
to the hand of her mistress,
so our eyes look to the Lord our God,
till he has mercy upon us.
3. Have mercy upon us, O Lord, have mercy upon us,
for we have had more than enough of contempt.
4. Our soul has had more than enough
of the scorn of those who are at ease,
of the contempt of the proud.

시편 Psalm 123:1-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캘리포니아에 반가운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비피해가 없도록 주여 도우소서. 고단한 인생길에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친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예배에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Jerusalem

사도행전 Acts 21:17-26

17.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When we had come to Jerusalem, the brothers received us gladly.
18.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On the following day Paul went in with us to James, and all the elders were present.
19.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After greeting them, he related one by one the things that God had done among the Gentiles through his ministry.
20.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And when they heard it, they glorified God. And they said to him, "You see, brother, how many thousands there are among the Jews of those who have believed. They are

all zealous for the law,

21.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and they have been told about you that you teach all the Jews who are among the Gentiles to forsake Moses, telling them not to circumcise their children or walk according to our customs.

22.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What then is to be done? They will certainly hear that you have come.

23.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Do therefore what we tell you. We have four men who are under a vow;

24.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take these men and purify yourself along with them and pay their expenses, so that they may shave their heads. Thus all will know that there is nothing in what they have been told about you, but that you yourself also live in observance of the law.

25.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But as for the Gentiles who have believed, we have sent a letter with our judgment that they should abstain from what has been sacrificed to idols, and from blood, and from what has been strangled,[d] and from sexual immorality."

26.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Then Paul took the men, and the next day he purified himself along with them and went into the temple, giving notice when the days of purification would be fulfilled and the offering presented for each one of them.

사도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Jerusalem)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제1차와 제2차 선교여행 때도 그 마지막 여정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의 신앙여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차례씩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시 137).

오늘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New Jerusalem)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발걸음이 신앙생활입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그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안식을 누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예루살렘은 영적인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육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림자” 같은 뜻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도 한갓 건물이나 지나가고 마는 장소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고, 거기서 천국소망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곳을 중요하게 여길 영적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주의로 매이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보십시오.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대하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17.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When we had come to Jerusalem, the brothers received us gladly.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18.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On the following day Paul went in with us to James, and all the elders were present.

이튿날.

바울 일행이 야고보(James)를 방문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성령충만 이후로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물론 예루살렘교회 장로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19.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After greeting them, he related one by one the things that God had done among the Gentiles through his ministry.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보고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 중에 행하신 모든 일을 낱낱이 나누었습니다.

20.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And when they heard it, they glorified God. And they said to him, “You see, brother, how many thousands there are among the Jews of those who have believed. They are all zealous for the law,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유대인들을 생각하라.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에 열심이 있는 자들이라.

여기 야고보가 언급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적극적인 자들로서, 1.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 2.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 곧 그리스도인 유대인들 두 가지 가 포함됩니다. 교회 안팎의 유대인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먼저 해외 이방인선교의 성과를 보고했을 때, 모든 예루살렘교회가 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대인들"입니다. 더구나 여기는 유대인의 본산지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해서, 야고보는 이제 교회가 다루어야 할 주제를 "이방인들"(gentiles)에게서 "유대인들"(Jews)로 신속하게 전환하고(quickly changing) 있는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가 긴장이 가득한 분위기로 금세 바뀌었습니다.

21.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and they have been told about you that you teach all the Jews who are among the Gentiles to forsake Moses, telling them not to circumcise their children or walk according to our customs.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지역 유대인들이 들은 것은 이것이라:

1.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칠 때
2. 모세를 배반하고
3.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4.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현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가진 "이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22.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What then is to be done? They will certainly hear that you have come.

그러면 어찌할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들을 것이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23.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Do therefore what we tell you. We have four men who are under a vow;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권면(recommend)합니다. 유대인들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혜롭게(wisely)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24.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take these men and purify yourself along with them and pay their expenses, so that they may shave their heads. Thus all will know that there is nothing in what they have been told about you, but that you yourself also live in observance of the law.

1. 그 서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purification)를 행하라.
2.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 두 가지는 “나실인 서원”(the Nazaritic vow)을 행하는 것입니다. 민수기(Numbers) 6:1-21에 기록된 율법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유대인 모두가, 그대에 대하여 들은 오해를 풀 것이다.
그리고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열심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순례자들 중에 하나로 온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주목하는 그대로 바울도 유대인의 나실인 정결예식 전통(Nazarite Purification Tradition)을 따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We ourselves are Jews by birth and not Gentile sinners; yet we know that a person is not justified by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so we also believed in Christ Jesus, in order to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works of the law, because by works of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갈라디아서 Galatians 2:15-16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이 없는 자들처럼 실시하는 그런 행위를 어쩌서 바울과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이 동의하고 있을까요?

왜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실시하기를 결의했을까요? 유대인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하였으며, 죽을 것도 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울과 예루살렘교회는 유대인들도 복음으로 품으려고 한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0 To the Jews I became as a Jew, in order to win Jews. To those under the law I became as one under the law (though not being myself under the law)

that I might win those under the law. 21 To those outside the law I became as one outside the law (not being outside the law of God but under the law of Christ) that I might win those outside the law.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9:20-21

한국교회가 핍박당할 때, 일제 때는 일본 순사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공산치하에서는 공산당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독재정권 때는 권력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인종과 국경을 넘어 모든 민족들에게로 복음증인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율법대로 지키는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25.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But as for the Gentiles who have believed, we have sent a letter with our judgment that they should abstain from what has been sacrificed to idols, and from blood, and from what has been strangled,[d] and from sexual immorality."

이제 야고보(James)는 예루살렘공회(Jerusalem Council)가 바울이 제1차 선교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여 선교보고 했을 때, 결의한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주님을 믿고 형제 된 이방인들에게 권면한 바, 다음을 피하라(they should abstain from):

1. 우상의 제물. what has been sacrificed to idols
2. 피. from blood
3. 목 매어 죽인 것. from what has been strangled
4. 음행. and from sexual immorality

이로써 유대인들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상기시킨 것은, 바울과 그 일행이 유대인 중에서,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26.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Then Paul took the men, and the next day he purified himself along with them and went into the temple, giving notice when the days of purification would be fulfilled and the offering presented for each one of them.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을 받은 바울은, 그의 권면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사람들을 데렸습니다.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각 결례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습니다.
각 사람을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야고보와 장로들이 염려한 것은,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을 받을까, 한 것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고통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였고, 급기야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 즉 사도행전 21:27-36에 나타나는 정황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는 핍박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소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서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얼마 전 설교에서 나는 "바울의 예루살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라고 연결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미 콜롬비아를 출발하여, 멕시코, 중국, 러시아, 아프리카 각 나라들에 선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교회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베이는 언제나 우리가 돌아와야 할 영적 고향입니다. 바울에게서 예루살렘처럼.

그런데 후파(Hoopa)나 해외 사역지(foreign mission lands)에 나가면 어려움 중에도 그래도 영혼구원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정작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현지는 냉랭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오래전 복음의 일꾼들이 교회를 세우고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미국, 그중에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가장 세속화 되어, 교회를 핍박하는 본거지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부흥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교회들이 아름답게 연합하여 영혼구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양육되었고, 미 대륙과 세계 곳곳으로 복음 들고 나아갔습니다. 가히 세계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샌프란시스코는 바울이 돌아온 예루살렘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본질에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미국 사람들도 대개는 "영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주의에 물들고 종교혼합주의 물결이 거셉니다.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행위에서 "죄악"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제거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새롭게 정의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인간은 누구도 죄인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되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할 뿐입니다. 동성애자들과 종교혼합주의자들, 성경을 떠난 영성을 강조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르치지 말고 그들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면, 그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핍박예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처럼, 우리는 선교지에서 돌아오는 길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는 “지역교회”이며, 나는 “지역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선교사역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읽을 때,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그 길이 곧 우리의 목회현실을 날카롭게 인식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자리잡고 있지만, 날마다 샌프란시스코로 새롭게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예 선교지로 떠나는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이 만일 권면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빌립보나 에베소 같은 지역에서 사역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선교지로 가서 돌아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온 바울에게 예루살렘이 또 다른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자리에서 “변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 로마행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떠날 그때까지!

오늘 우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영적 싸움입니다. 처음 사랑을 저버리고, 이제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이 드세어진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문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한 해외 선교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기도와 후원이 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해외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같은 성도들의 기도후원을 힘입어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그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이제부터 금문교회는 샌프란시스코를 선교사역하는 땅으로 재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O Jerusalem, Jerusalem! The city that kills the prophets and stones those who are sent to it! How often would I have gathered your children together as a hen gathers her brood under her wings, and you were not willing!

마태복음 Matthew 23:37

바울의 사역에서 그가 방문했던 수많은 도시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핍박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Sanhedrin)의 재판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 앞에 서신 것처럼.

오늘 나는 앞으로 금문교회가 샌프란시스코 목회사역을 어떤 태도와 각오를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내다보는 것입니다. 가장 고난도의 핍박이 줄기차게 닥쳐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위틈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오히려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리 사탄세력이 크고 위협적이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도시 샌프란시스코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